

事、寮舎一棟을 新設하고 既設計에서는 鐵物工事を 除去하며 保護前室을 架構한

◎ 禮山出土의 靑銅如來立像

一九六四年十一月十二日 扶博에 入手된 것이나 出土는 同年四、五月頃 德山面上加里(伽耶山)에서 開墾作業中 出土되었다. 八角蓮座를 具備하였는데 肉髻螺髮이 있고 手印은 與願施無畏의 通肩 新羅型. 年代는 高麗初期. 全面에 靑銅가 덮히고 保存完全. 全高一六cm 像高一二cm 背面에 長橢圓孔(長六cm 幅一·五cm 深一·〇cm).

◎ 淸州에서 磨製石劍、石鏃出土

忠北淸州市 용암리 山八七의 一에서 一九六四年 十月十三日 發見 教育區廳에서 扶餘에 入手 品目은 石劍 一(黑色粘板石 長三十四cm 石鏃十七(長四·五—一·〇cm). (發見者는 용암리 지대춘氏)

◎ 瑞山磨崖三尊佛의 調査

十二月十六、七 兩日間 黃壽永 申榮勳 兩氏에 의하여 補修工事設計에 대한 現地檢討가 있었다. 이 設計에 의하면 佛像上面에 屋蓋를 架設키 위하여 岩面에 穿孔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것이 十二月中에 二次나 流札된 것은 施工業者들이 佛像面의 龜裂을 두려워한 까닭이라고 한다.

◎ 皇龍寺木塔址心礎 盜掘

十二月十七日 午前二時頃 盜掘된 事實이 同日 當局에 申告되어 慶州博物館의 現場調査가 있었다 한다. 心礎石의 立柱石을 들고 그 밑을 攪亂한 痕跡이 뚜렷하며 靑銅片 數枚가 散亂하고 있어 舍利具의 盜失이 推定되었다 한다.

◎ 新羅五岳調査團 第二次調査

新羅五岳綜合學術調査團에서는 第二次調査計劃으로 中岳인 八公山과 東岳인 吐含山을 目的地로 選定하여 지난 三日부터 踏査中인 바 그 參加名單은 다음과 같다

秦弘夏、金奘夏、黃壽永、鄭永鎬委員과 文甲洙、尹容鎮、金和英、文明大、諸氏.

第六卷 第二號 通卷五十五號

沃川邑 兩水里寺址出土 一括遺物

—— 특히 釜와 鼎에 대하여 ——

洪 思 俊

忠北沃川邑 兩水里에서 一九六四年 六月二十五日 同里 한태봉의 家族三名이 所有田을 畚으로 파꾸는 作業을 하던 중에 寺址라는 傳說地이었고 墟垣의 形迹도 있는 데서 高麗時代 靑銅淨瓶一①、小形바라(禁口)②一、靑磁無文盃(三)과 대접③(五)計八과 李朝時代 靑磁小 접시④計三五個가 出土되었고 이와 함께 高麗로 추정되는 鐵製의 釜와 鼎이 發見되어 一九六四年 十二月初旬 扶餘博物館에 搬入된 것이 있었다. 이 遺物들은 寺域內에 埋沒된 一括品으로 戰時에 寺院僧侶의 非常手段으로 地下에 埋藏 避亂하다가 僧侶마저 世上을 떠나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지않고는 이一括品들이 한곳에서 出土될리가 萬無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다. 直接 이 出土地를 目見하지 못하여 斷言을 하기는 困難하나 遺物들이 高麗 李朝 兩代것이 겹쳐서 發見됨은 上限이 高麗이고 下限이 李朝임에서 高麗代에 創寺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寺刹에서 使用되던 遺物中에는 釜鼎 兩種의 鐵製品으로 數種形의 釜와 鼎이 나왔음은 貴重한 資料라 아니할 수 없다.

韓國에서 割烹의 食事를 한적은 매우 오랜 歷史를 가졌다고 생각되며 또는 鐵을 使用할줄 알았던 時代도 三國時代初에서 始作된 것으로 鐵釜 그 遺物이 新羅것이 아니라 ⑤ 百濟⑥ 것이 往往 出土發見되었으며 形態도 現今 使用하는 솥과는 多少 틀리는 點이 있다. 以來 高麗 李朝에 亶하여

또한 大衆用과 家庭用 술의 變形을 보이고 있음은 注目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筆者가 알고 있는 大衆用 술에는 法住寺와 開泰寺의 大鑊(大釜)으로 그 形態와 用途가 同一할 것으로 推定되거나와 그 時代도 兩者가 高麗時代를 넘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口徑에 比하여 술높이가 짧으며 마치 병거지(軍帽)를 뒤집어 놓은 形態다.

二

그러나 今次 出土된 釜와 鼎을 大鑊과 全然 다르며 形態上 그 種別을 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I, 釜에 屬한 것. 二種(圖版 I의 一)과 I의 二(二)

釜는 술전이 있고 脚部가 없는 것을 말한다.

- (一) A 口徑과 높이가 거의 비슷하며 다만 술전이 口部에서 六·四五寸下到 幅二寸으로 둘러 있다. 口徑 二·三·三八尺 胸徑 二·六·六〇尺 높이 一·三·三四尺 (圖版 A)

- A 外에 口徑 一·七八尺 (圖版 B) 一·八〇尺 (圖版 C) 一·五七尺 (圖版 D) 세개가 있으나 모두 胸部 以下가 全破되어 높이를 알 수 없다. (以上四個)

- (二) A 口徑과 높이가 亦是 相近한 尺數에 다만 四方에만 幅一寸의 술전이 口部下 一·八寸에 附屬되어 있는 것들이다. 口徑 一·二·二五尺 胸徑 一·三七尺 높이 一·二三尺 (I의 二의 圖版 A)

以外에 縱으로 높이 二尺 술은 半破되어 全體의 술 모양은 알 수 없다. (I의 二의 B) (以上二個)

以上の 兩種 술을 술전을 基準하고 上下의 길이를 보면 下腹이 若干 불으고 술전위보다 술전 아래가 相當히 길어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形態를 이룬 까닭은 많은 量을 술안에 넣고 오래 동안 熱을 加하는 데에 主眼을 둔 것이 分明하다고 생각된다.

II, 鼎에 屬한 것. 二種計七個(圖版 II의 一)의 A, B (II의 二의 A~E) 器部 三面에 三脚이 附着된 술을 말한다.

- (一) A 술전이 口徑에 있어 內斜되고 底面이 平平하여서 대야(洗面器) 모양을 하고 술전 三方下到 六·五寸의 脚을 이루었다. (II의 一圖版 A)

다른 한개는 三脚이 圓錐 短하여 一見 鼎으로 보기에 서투르나 亦是 鐵製로서 短時間에 簡略한 飲食物을 익히는데 使用한 듯하다. (II의 一의 圖版 B)

- (II의 一) A 內口徑 七·五寸 外口徑 一尺 높이 六·九寸 술底에서 높이 二·七寸
- (II의 一) B 內口徑 一·〇八尺 外口徑 一·三三三尺 높이 四·六寸 술底에서 二·五寸

(二) 술의 中腹에 술전을 두르고 술전 아래 三方에 三脚을 附着시키었는 데 脚部가 긴 것과 짧은 것으로 兩分할 수 있다. 이 鼎들은 合計五個인데 술전을 中心하고 그 上下가 거의 같은 길이이고 鼎內底面은 橢圓에 가까우다.

- (II의 二) A 胸徑 九·五寸 口徑 九寸 口에서 술 밑 七寸
- (II의 二) B 胸徑 九·五寸 높이 一·一五尺 口邊에서 술 밑 六·一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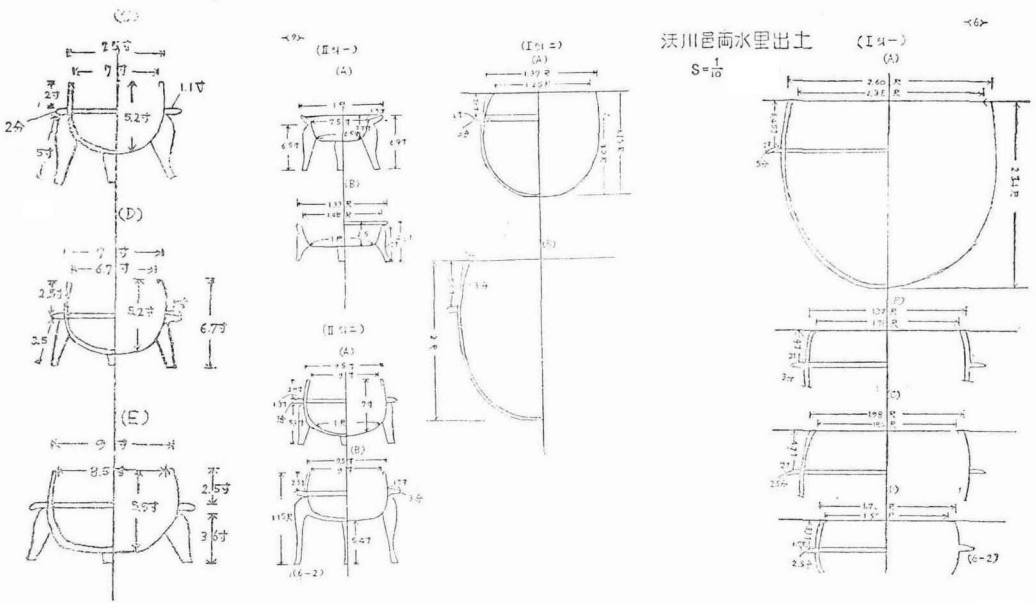
- (II의 二) C 胸徑 七·五寸 口徑 七·二寸 口邊에서 술 밑 五·二寸
- (II의 二) D 胸徑 七寸 口徑 六·七寸 口邊에서 술 밑 五·二寸

- (II의 二) E 胸徑 九寸 口徑 八·五寸 口邊에서 술 밑 五·九寸 높이 六·一寸

鼎은 三脚이 술에 附着한 것을 말하였는데 술전이 口緣을 이룬 것과 술腹 部에 附着시킨 것 등 二種이 있고 술전 아래에 三脚이 있으나 脚이 기른 것과 짧은 것으로 區分할 수가 있다. 이번 出土의 鼎은 술容量이 적은 것을 보아서 副食物을 끓인다던가 또는 부치개(煎)질하던 容器로 推測하게 되는 것이다.

三

우리나라에서 밥을 짓고 장(醬)을 만드는 原料 糜黍를煮는 술 등의 名



沃川邑兩水里出土 (I 91-)

$S = \frac{1}{10}$

籥이 다르다 밥을 짓는 솥(釜?) 매우나 소(牛) 먹이를 끓이는 솥을 가마(釜)라고 한다. 용량이 크고 작은 것을 標準하고 솥과 가마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形態부터 相異하지 않음이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二項에서 말한 바와 같이 根本的으로 다른 것으로 본다. I의 (一)과 I의 (二)는 釜에 屬하는데 그 種類가 솥전이 四方에 別附한 것과 솥전이 腹周에 附着한 것이 있고 II의 (一)과 II의 (二)는 鼎에 屬하는데 솥전이 平平和고 솥전이 口緣구실을 하는 것과 腹周에 솥전이 둘러있으며 脚部가 긴 것과 짧은 것으로 區分되고 있다. 이들 鐵製釜와 鼎은 腐蝕과 損傷이 尤甚하나 以上과 같이 復元考察하는 바이다.

在來 韓國에서 使用하는 솥을 보면 地方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것을 알겠는데 平壤 慶州 솥은 三脚이 附着된 것이 大部分이고 公州 扶餘 等地의 솥은 三脚이 없는 즉 四方에 솥전이 附着된 것이 아니면 솥전이 솥復部에 두루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고 보면 今次 沃川에서 出土된 釜鼎들을 볼 적에 地方的으로 固有솥이 發達한 것이 混合使用되었던 時代가 있었던 것으로 高麗時代를 그 混用하던 始源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鐵을 使用할 줄 알고 이것을 生活面에 反映시키어서 傳來한 釜鼎의 發達이 出土遺物로 나타난 금년 釜鼎은 十三個나 多量으로 되고 多樣임에서 몇마디를 적어 紹介하여 두는 바이다.

註

- ① 淨瓶은 通型으로 高三八cm 胴徑十四・三cm 底徑九cm 胴部注口는 缺失되었으나 頸部는 折斷.
- ② 金鼓는 小形通型으로 底面이 破失되었는데 上徑이 十六cm 高七cm.
- ③ 深鉢 三個는 徑十六・五~十八cm 대접 五個는 徑十五・七~十八cm.
- ④ 小접시는 花形七개 (徑九cm) 圓形二個 (徑九cm) 와 外周에 縱線紋이 있는 것 合計二十六個 (徑約十一cm).
- ⑤ 大正十二年古蹟調査報告第一冊 一〇九頁 一一頁와 國博四二八六年發掘報告 妓床塚、馬塚二三八號墳 圖版第四二及第四三參照.
- ⑥ 一九六三年六月頃 扶蘇山迎日樓에서 때재골에 通하는 回廊道路 開鑿工事に 迎日樓下道路 百m地點에서 鐵製솥(釜)이 出土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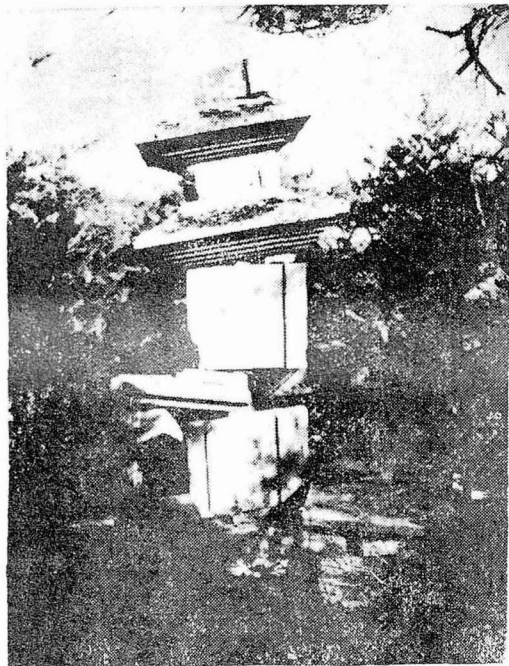
○나 人夫不注意로 破壞되었다. 그形式은 I의二와 비슷하다.

禪本庵三層石塔

(新羅五岳調查記其一)

秦 弘 燮

禪本庵은 冠峰(갓바위) 石造如來坐像(本誌第二卷 第三號 鄭永鎬)의 八公山頂의 石佛兩軀(參照) 北麓에 있고 銀海寺 末寺로 되어있다. 이庵宇西便에 나지막한 山峰이 있고 이 峰頭에 三層石塔 一基가 建立되었다. 新羅通式의 이 石塔은 二重基壇으로 下層基壇은 面石과 甲石을 各各 八石으로 構成하였고 撐柱는 二柱가 있고 甲石 上面에는 角弧의 물덩이 있다. 上層基壇은 面石 八枚 甲石 四枚로서 構成하고 面石에는 亦是 各面에 二柱씩의 撐柱가 있다. 甲石 上面에는 角形 二重 물덩이 있어 塔



第六卷 第二號 通卷五十五號

身을 받고 있다. 初層塔身은 上下로 二石을 겹쳤고 隅柱가 뚜렷하다. 二層、三層의 塔身은 適當히 減縮되었다.

屋蓋石받침은 各層 五段이며 추너는 直線을 이루어 新羅石塔의 定式을 보여주고 있다.

初層塔身 上面에 徑 二六cm、深 一七cm의 舍利孔이 있으나 舍利는 勿論 盜失되었다. 二層 屋蓋의 한쪽을 들고 그 틈에 나무토막과 돌을 고여 놓았는데 이것은 舍利를 盜取한 痕跡으로 보인다.

相輪部는 全失되었고 다만 밑에 轉落되어 있는 三層屋蓋石 上面에 徑 一〇·五cm 深 九cm의 圓孔이 있는데 擦柱孔으로 보인다. 總高 五m、下基壇 幅 三·三m의 堂堂한 塔이며 各部의 比例 또한 整頓되었고 더욱이 松林에 싸인 峰頭에 肅穆 솟아 雄壯한 形態를 보이고 있다. 初層塔身을 上下 二石으로 構成함은 麗代의 作인 光州 西五層石塔에서도 볼 수 있는 手法이지만 羅代의 作에 이러한 例는 本바 없어 이것이 石材求得이 어려웠던 理由인지는 몰라도 注目되는 바다. 그 樣式 手法으로 보아 八世紀를 넘지 않을 秀作이라 하겠다.

또 한가지 注目되는 바는 建塔의 位置다. 前에 도言及한 바와 같이 刹 隣近의 山峰을 選擇하여 그 峰頭에 建立하였으니 그 近處에 이러한 巨塔에 알맞는 寺宇를 이룩할만한 자리도 없고 보면 寺宇를 經營하였다 하여도 極히 小規模의 것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現在 石塔 南쪽은 急傾斜를 이루는데 石塔에서 僅僅 約 二·五m의 距離를 두고 거의 同代로 보이는 石燈臺石이 있고 그 밑으로 屋蓋石이 轉落되어 있다. 이와 같은 位置를 選擇하여 建塔한 例는 華嚴寺 四獅三層石塔이 있어 塔前에는 亦是 石燈이 있고 그외에도 石窟庵 三層石塔이 그러하고 慶州 茸長寺址 三層石塔이 그러하다. 또 石塔은 아닐지라도 安東 開目寺 塔址(本誌 第五卷 第八號參照) 安東 場基洞 塔址(本誌 第五卷 第九號 參照) 등이 모두 그러하다. 此外에도 이러한 例를 볼 수 있으니 統一期 以後 敎理上의 變異도 있겠지만 建塔位置로 이러한 자리를 選擇한 理由는 注目되어야 할 問題라고 할 것이다.